
올해 안으로 남, 북 2대 희토그룹 설립한다.

2014. 08. 05, 차이신망(CAIXIN.NET)

[차이신망(CAIXIN.NET)] (류사오징(劉曉景)) 8월 4일 오후 바오강희토그룹(包鋼稀土)이 최대주주인 바오강(包鋼)그룹의 중국북방희토(그룹)회사 설립방안이 공신부(工信部, 공업 및 신식화부)의 승인을 득했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샤먼우예(廈門鎢業)의 희토그룹회사 설립방안도 공신부의 승인을 취득했다.

남방과 북방 2대 희토그룹회사의 설립은 중국이 희토업계의 통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두 기업 모두 올해 안으로 그룹사 설립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희토업계는 지난 수년간의 정책 추진과 통합 과정을 통해 과거의 분산된 국면에서 벗어나 대그룹이 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구조로 변화 중에 있다.

바오강(包鋼)(그룹)회사가 추진중에 있는 중국북방희토(그룹)고과기주식유한회사 설립방안이 내몽고자치구 인민정부의 승인을 획득했다.

회답공문에서 공신부는 바오강(包鋼)회사에게 내몽고자치구 내의 모든 희토채굴기업, 희토제련기업, 종합이용기업과 간수(甘肅)희토그룹유한회사를 통합하고 바오강희토회사를 주체로 하여 북방희토그룹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4년 연말까지 모든 통합 업무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장화 활동과 지분통제(참여) 또는 지분교환 등 방식을 통해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기와 단계별로 내몽고자치구 희토기업, 간수(甘肅)희토그룹유한책임회사 및 내몽고자치구 외의 기타 희토기업에 대한 통합과 구조조정을 완성하여 자산으로 연결된 희토기업집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샤먼우예(廈門鎢業)는 공신부로부터 <샤먼우예(廈門鎢業)주식유한회사의 희토그룹 구성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회답공문을 받았다고 공고를 발표했다. 회답공문에서 공신부는 샤먼우예(廈門鎢業)에게 그룹 구성방안에 따라 우광(五礦)을 제외한 푸젠(福建)성의 기존 희토채굴기업, 희토제련기업 및 종합이용기업을 통합하고 2014년 연말까지 그룹화 업무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현단계 중국 희토업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여섯개 기업으로 바오강그룹(包鋼集團), 우광그룹(五礦集團), 중위그룹(中鋁集團), 광동희토(廣東稀土), 간저우희토(贛州稀土)

및샤먼우예(廈門鋤業)가 있다. 올해 초 공신부는 기타 부서와 공동으로 북경에서 대규모 희토기업집단 구성을 주제로 하는 전문회의를 소집하여 위 여섯개 기업을 중심으로 합병,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 희토기업집단을 구성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몇년간 중국이 시행한 희토 채굴총량 통제계획으로 인해 희토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업계 인사들은 일남일북 두개 희토그룹의 구성은 정부가 희토 채굴총량 통제계획을 진일보 추진하는데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대 그룹 구성방안이 승인을 득함에 따라 광성유색(廣晟有色), 우광희토(五礦稀土), 중위희토(中鋁稀土) 등 희토기업의 그룹화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졌다. 희토업계가 그룹화를 향해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희토 채굴총량 통제계획에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3 월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이 중국의 희토수출 규제조치를 견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은 초심에서 패소했다. 그 이후 국내 희토업계는 한동안의 불황기를 겪었다.

7 월, 공신부와 재정부는 <사물인터넷 발전 및 희토산업 보조자금 관리방법>을 공동 출범하여 희토채굴 감독관리, 희토 첨단응용 등에 대해 지원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평가를 통과한 희토채굴·선별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능력에 따라 일회성 장려금을 제공하고 장려금 기준은 광산개발·광물선별 1,000 위안/톤, 제련·분리 1,500 위안/톤, 금속제련 500 위안/톤으로 정했다. 이 정책에 따라 바오강희토(包鋼稀土)는 2013년 생산능력 기준으로 1억위안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인완귀(申銀萬國)가 발표한 분석보고서에서는 희토업계 산업정책 집중발표기에 들어섬에 따라 향후 몇개월 안으로 희토업계의 통합을 진일보 촉진시키기 위한 폭탄적 산업정책이 출범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금속 및 광산 정보 전문사이트 루이다오(瑞道)금속망(www.ruidow.com)의 애널리스트 가오위신(高玉欣)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그룹화는 업계 집중도 향상 및 후진 생산능력 탈락에 유리하지만 객관적으로 소규모 기업과 민영광산의 발전에 불리하다. 소규모 기업과 민영광산은 저조한 시장환경속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을 겪게 될 것이고 6대 국유기업과의 자원쟁탈전에서 패배함에 따라 불법수단과 비정규 통로를 통해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희토업계의 발전에 지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희토업계가 불황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희토 비축계획이 정식 가동됐고 그 규모는 1 만톤을 넘는다. 희토 비축을 통해 공급량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 수요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격하여 가격을 낮추고 희토의 응용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가오위신(高玉欣)은 분석했다.

희토기업 그룹화에 대한 기대감에 희토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바오강희토(包鋼稀土, 600111.SH)의 금일 증가는 23.75 위안으로 전일 대비 1.54% 상승했고, 샤먼우예(廈門鎢業)의 금일 증가는 33.1 위안으로 전일 대비 0.03% 상승했다.